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 哲 元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국문요약

지난 2004년 5월 중·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신규로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6천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에 비해 신규 가입국의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EU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 입장에서 EU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규가입국 입장에서 생활수준이 기존 회원국에 점차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유럽대륙 전체가 희망에 부풀어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교역 및 투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EU 가입 이후 교역·투자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동구 국가와의 경제협력증진 방안 마련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동구 국가들은 EU 가입 추진과정에서 교역추이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였다. 첫째,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둘째, EU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셋째, 무역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진단해보면, EU 가입 이후 인프라와 제도 등이 개선되면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선 신규가입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교역증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반적인 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무역구조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비교우위가 이전하는, 이른바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EU 가입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가입국의 EU 편향적인 무역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비슷한 구조가 이어지거나 다소 심화되더라도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다.

2004~05년 중·동구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은 대체로 2003년에 비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투자환경이 점차 EU 평균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므로 이들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EU 가입으로 EU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민간부문 개발, 은행부문 개혁, 외환 및 교역 자유화, 법제 정비 등으로 중·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2004년 5월에 EU에 가입한 선진 중·동구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과는 달리 EU 가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하는바,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신규가입국들은 EU 가입에 힘입어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 및 구매력 증가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증가는 한국의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신규가입국들의 수출상품 개발은 한국의 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EU 신규가입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국인바,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완화가 양측 교역확대에 긍정적일 것이다. 한편 과거 대우자동차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급격하게 활성화된 것처럼 최근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진출로 한국기업의 이 지역 투자진출도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한

국의 중·동구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바로 수출증가로 이어진 것처럼
최근 회복세가 뚜렷한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수출도 이러한 투자증대에
힘입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2장 중·동구 지역의 교역추이와 향후 전망	12
1. 교역추이	12
가. 교역현황 개관 / 12	
나. EU 가입 추진과정에서의 교역추이 변화 / 20	
2. EU 확대 이후 교역추이 전망	26
제3장 중·동구 지역의 FDI 유입추이와 향후 전망	31
1. FDI 유입현황	31
2. EU 확대 이후 FDI 유입 전망	36
제4장 한국과 중·동구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40
1. 교역현황	40
2. 한국기업들의 투자현황	44
3. 향후 경제협력 전망	49
가. 교역 / 49	
나. 투자 / 51	
참고문헌	53
Executive Summary	55

표 차례

<표 2-1> 중·동구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입 구성	16
<표 2-2> 신규가입 10개국의 3대 무역특화품목	18
<표 2-3> 숙련도에 따라 분류된 산업별 RCA 지수	21
<표 2-4> 중·동구의 국별 RCA 지수	24
<표 2-5>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적정교역량대비 실제 교역량 비율	27
<표 2-6> 지역별 무역구조의 수렴성 분석결과	29
<표 3-1> 중구 4개국의 법인세 현황	38
<표 4-1> 중구 3개국에 대한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기준)	43

그림 차례

<그림 2-1> 중·동구 국가들의 수출추이	13
<그림 2-2> 중·동구 국가들의 수입추이	14
<그림 2-3>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수지추이	14
<그림 2-4> 신규가입국의 국별 교역비중(2003년 기준)	15
<그림 2-5> 중·동구 국가들의 개방도 변화	23
<그림 3-1> 1989~2002년 중·동구의 순누적 민간자본 유입현황	32
<그림 3-2> 對중·동구 유입 FDI의 주요 투자국별 구성	33
<그림 3-3> 對중·동구 유입 FDI의 주요 산업별 구성	35
<그림 4-1> 1991~2003년 한국의 對신규가입국과의 교역추이	41
<그림 4-2>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국별 교역구조(2003년 기준)	42
<그림 4-3>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추이	45
<그림 4-4>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의 국별 구성	47
<그림 4-5>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의 업종별 구성	48

제1장 서론

지난 2004년 5월 신규로 10개국¹⁾이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6천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에 비해 신규가입국의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EU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 입장에서 EU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규가입국 입장에서 생활수준이 기존 회원국에 점차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유럽대륙 전체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중·동구의 신규가입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EU 가입에 힘입어 향후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 이러한 분석의 주요 근거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제시된다. 첫째, 보다 저렴한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유럽 전체의 생산설비가 서구에서 동구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 둘째, EU 가입으로 FDI 유입이 증가될 것이며 EU 기금³⁾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유로권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발칸 및 CIS의 경제 활성화로 인근 시장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이다.⁴⁾

-
- 1)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구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연안의 2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 2) IMF(2003); Global Insight(2004)
 - 3)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서는 WIIW(2003), "Transfer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after 2006", *Monthly Report*, 2003/5를 참고.
 - 4) PlanEcon(2003)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발칸지역 경제재건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발칸국가들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World Bank(2003)에 의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도 2004년에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구 국가들은 이번 EU 가입으로 유럽시장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비즈니스위험이 감소하는 등의 편익과 거대단일시장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⁵⁾ 또한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현된 편익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편익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교역증대가 가장 대표적이다. 즉 진입장벽이 축소되고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구 지역으로의 FDI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중·동구 국가들의 교역증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중·동구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시작한 이후 최대 교역상대로 부상한 EU와의 교역비중이 60~70%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구조 또한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존 EU 국가들의 구조에 점차 수렴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이 예상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들에서의 사업확장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이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기존 EU 회원국 수준에 점차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WMRC(World Markets Research Centre)에 따르면,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同 국가들은 10년 이내에 5~9%(매년 0.2~1.7%)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⁶⁾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 전망으로 FDI 유입 등을 유도하여 EU 가입을 추진해온 중·동구 국가들의 경

-
- 5) 신규가입국들의 EU 가입에 따른 편익에 대해서는 WMRC(2002. 10. 4), *World Markets Country Analysis*, "European Union: Enlargement: A Process Review"; Deutsche Bank(2002), "Runaway costs or willingness to reform- the two sides to enlargement."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July 17)을 참고.
 - 6) WMRC(2002), *World Markets Country Analysis*, "European Union: Enlargement: A Process Review," p. 14 (Oct 4).

제성장에 이미 6~7년 전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⁷⁾

러시아 경제위기와 대우그룹 해체 이후 냉각된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경제협력은 이러한 신규가입국 경제활성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중·동구 개혁선도국들의 경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동구 지역을 매우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선정,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동구 시장의 유망성은 아직까지 유효함은 물론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EU가 최근 4억 5,500만 명의 거대시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거점으로서 중·동구의 EU 신규가입국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교역 및 투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EU 가입 이후의 교역·투자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동구 국가와의 경제협력증진방안 마련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Deutsche Bank(2002), "Runaway costs or willingness to reform- the two sides to enlargement,"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July 17)

제2장 중 · 동구 지역의 교역추이와 향후 전망

1. 교역추이

가. 교역현황 개관

2003년 중 · 동구⁸⁾ 전체의 수출은 2,839억 8,38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신규가입국⁹⁾의 수출이 71.0%를 점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신규가입국의 수출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CIS 12개국을 포함한 동유럽 전체의 수출에서도 43.9%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규모는 EU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바, EU 25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신규가입국의 수출비중은 6.6%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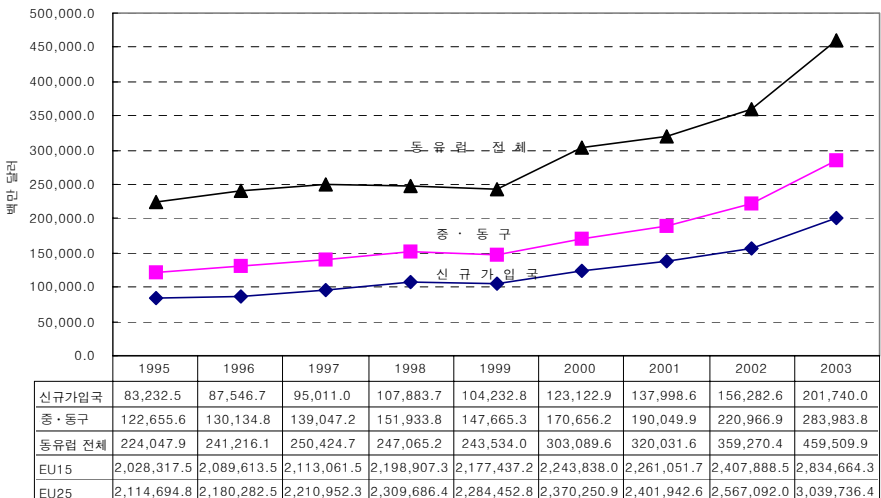
<그림 2-2>에 의하면 수입현황도 수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 · 동구 전체의 수입에서 신규가입국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은 66.1%였다. 하지만 동유럽 전체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신규가입국의 수입비중은 49.7%로 수출비중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U에 비하면 신규가입국의 수입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25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신규가입국의 수입비중은 수출비중보다 다소 높은 7.5%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동유럽 전체 혹은 EU 25에서

-
- 8) 여기서는 중 · 동구 15개국 가운데 통계발표가 되지 않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등 4개국을 제외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총 11개국의 통계를 집계한다.
- 9) 2004년 5월 EU에 신규가입한 10개국 가운데 지중해 연안의 키프로스¹⁰⁾와 몰타를 제외한 중 · 동구의 8개국을 지칭한다.

차지하는 신규가입국의 수입비중은 대체로 수출비중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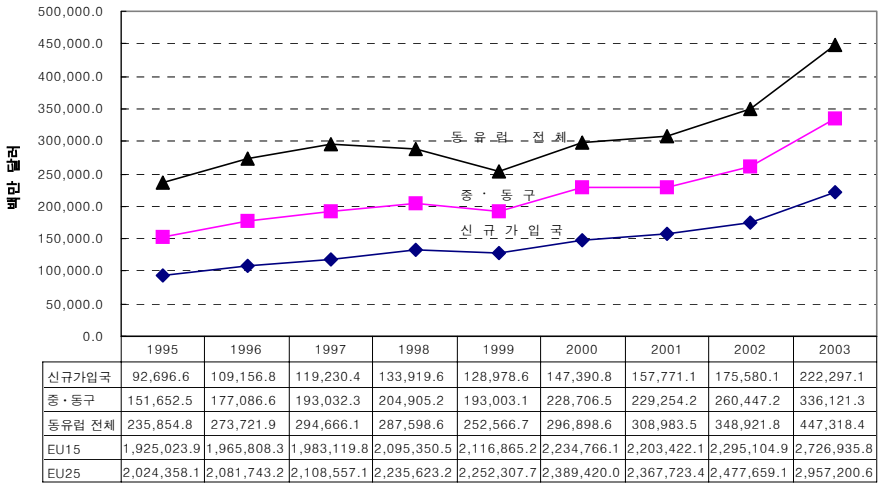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까지 무역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소폭의 무역수지 개선과 악화가 거듭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신규가입국은 1998년까지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다가 그 이후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IS를 포함한 동유럽 전체의 무역수지는 2000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이 고유가에 힘입어 에너지자원 수출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가입국과는 달리 EU의 기존 회원국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EU의 무역흑자 폭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축소되었으나, 2001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 중·동구 국가들의 수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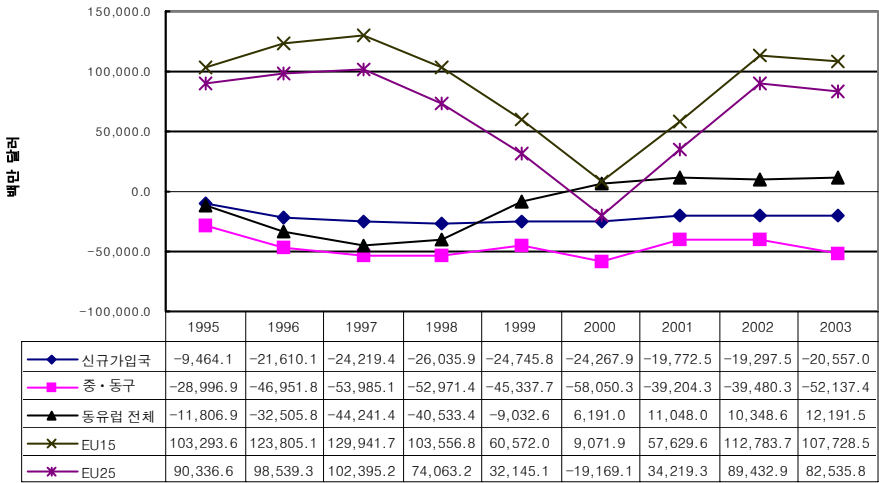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2-2> 중·동구 국가들의 수입추이



자료: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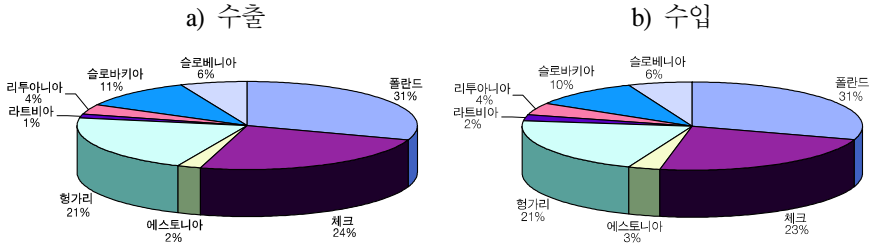
<그림 2-3>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수지추이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2-4> 신규가입국의 국별 교역비중(2003년 기준)

(단위: 총수출 혹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Global Insight

신규가입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로 31%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체코가 24%, 헝가리가 21%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이밖에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11%와 6%를 점하고 있으며, 발틱 3국은 모두 합해도 7%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신규가입국 수입의 국별 비중도 수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신규가입국들은 2002년 기준으로 EU와의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는 총수출의 73.5%가 EU에 대한 수출이었으며, 체코와 폴란드도 對EU 수출비중이 각각 68.8%와 67.6%에 달하였다. 신규가입국 가운데 對EU 수출비중이 가장 낮은 리투아니아도 총수출의 47.1%가 EU시장을 겨냥하였다. 신규가입국들에 있어 EU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은 인근 중·동구 지역이었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은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對EU 수출비중 다음으로 컸으며, 슬로베니아는 발칸지역이 두 번째 수출시장이었다. 한편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EU 이외의 시장국가들과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1> 중·동구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입 구성

(단위: %)

	수출								수입							
	동유럽 체제전환국				非체제전환국				동유럽 체제전환국				非체제전환국			
	역내 ¹⁾		기타		EU		기타		역내 ¹⁾		기타		EU		기타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신규 8²⁾																
체 크	25.4	15.8	6.5	4.8	54.0	68.8	14.1	10.6	14.8	8.7	11.0	8.2	55.9	71.7	18.2	11.4
에스토니아	13.1	13.5	25.2	7.2	54.7	61.8	7.0	17.6	3.0	4.0	20.6	28.4	66.0	52.1	10.4	15.4
헝 가 리	8.4	6.6	14.0	7.2	62.8	73.5	14.9	12.8	5.6	5.1	16.7	14.2	61.5	57.5	16.3	23.2
라 트 비 아	12.3	13.8	38.3	8.3	44.2	62.3	5.3	15.7	12.4	15.0	24.6	17.8	50.0	52.3	13.0	14.8
리투아니아	14.1	24.1	42.9	16.1	36.4	47.1	6.6	12.7	5.8	4.0	40.0	30.2	37.2	51.2	17.0	14.6
폴 란 드	6.7	11.8	11.0	9.0	70.1	67.6	12.2	11.6	6.3	8.0	9.8	13.2	64.7	67.5	19.2	11.2
슬로바키아	45.8	28.4	8.7	4.9	37.4	59.5	8.2	7.2	30.6	19.9	19.6	17.9	34.8	52.3	15.0	9.9
슬로베니아	5.0	7.7	19.1	21.4	67.3	61.9	8.6	9.0	6.2	6.8	10.4	10.2	69.3	72.0	14.0	11.0
발 칸																
- 불가리아	13.3	9.5	19.5	7.1	38.6	55.6	28.6	27.7	1.4	2.8	37.0	23.8	38.4	51.3	23.2	22.1
- 루마니아	1.9	3.1	8.9	7.5	54.4	68.0	34.7	21.5	0.9	1.5	21.9	18.3	50.9	63.9	26.3	16.3
C I S																
- 러 시 아	18.5	13.4	13.3	15.0	33.6	36.0	34.6	35.6	19.3	12.5	7.2	5.3	38.8	43.2	34.7	39.0
- 우크라이나	48.9	25.9	10.0	13.6	11.4	23.5	29.7	36.9	41.6	42.5	7.5	6.4	15.6	29.3	35.3	21.9

주: 1) 신규 8개국은 신규 8개국간, 발칸국가는 발칸 7개국간 그리고 CIS는 CIS 12개국간 교역을 의미함.

2) 2004년 5월 EU에 신규가입한 10개국 가운데 지중해 연안의 키프로스 및 몰타를 제외한 중·동구의 8개국

자료: EBRD(2003), p. 86.

신규가입국의 EU와의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의 경우에 더욱 높게 나타났는바, 대체로 총수입의 50~70%를 EU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EU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출시장과는 달리 인근의 중·동구 보다는 CIS 혹은 EU 이외의 시장국가인 경우가 많았다. CIS 국가들과 국경

을 접하고 있는 발틱 3국과 폴란드는 CIS로부터의 수입비중이 EU 다음으로 컸으며,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EU 이외의 시장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슬로바키아만이 인근 중·동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EU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국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역특화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Lafay 지수¹⁰⁾를 측정하였다.¹¹⁾ 대상국가 i 와 대상상품 j 에 대한 Lafay 지수는 <식 2-1>과 같이 정의된다.

$$LFI_j^i = 100 \times \left[\frac{(x_j^i - m_j^i)}{(x_j^i + m_j^i)} - \frac{\sum_{j=1}^N (x_j^i - m_j^i)}{\sum_{j=1}^N (x_j^i + m_j^i)} \right] \times \left[\frac{(x_j^i + m_j^i)}{\sum_{j=1}^N (x_j^i + m_j^i)} \right] \quad \text{<식 2-1>}$$

<식 2-1>에서 x_j^i 와 m_j^i 는 i 국가의 j 수출품과 수입품이며, N 은 품목 수이다. 또한 한 $\sum_{j=1}^N LFI_j^i = 0$ 이고, Lafay 지수가 정(+)의 값이면 해당 상품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클수록 특화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수가 부(-)의 값이면 해당 상품이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CB는 1999~2000년 연간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가입 10개국에 대해 SITC 3단위 기준으로 총 208개 항목의 Lafay 지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Lafay 지수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3개 항목을 각국별로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¹²⁾

10) 1992년 Lafay에 의해 창안된 이 지수는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수입부분이 측정대상에 포함되어 산업내 무역에 대한 조정과 재수출 등이 고려되어 RCA 지수보다 다소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Zaghini(2003), pp. 9~16.

12) Zaghini(2003), pp. 39~48의 Appendix B에는 Lafay 지수의 정(+)의 값이 가장 큰 10대 품목과 부(-)의 값이 가장 큰 10대 품목이 각국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자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도 측정되어 있는바, 다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2-2> 신규가입 10개국의 3대 무역특화품목

국 명	SITC 코드	품 목	LFI
키 프 로 스	122	담배	7.3
	054	채소류	1.0
	541	의약품	0.9
체 크	781	승용차	3.0
	784	차량부품	1.0
	665	유리제품	1.0
에 스토니아	764	통신장비 및 부품	5.9
	248	목재 및 철도 침목	2.4
	247	기타 나무제품	1.9
헝 가 리	752	자동데이터처리장비	3.8
	713	내연피스톤엔진 및 부품	2.9
	781	승용차	1.0
라 트 비 아	248	목재 및 철도 침목	9.8
	673	철강 및 철강제품	2.4
	247	기타 나무제품	2.3
리 투아니아	334	정제석유제품	4.8
	842	섬유소재 남성외출복	2.6
	562	비료	1.9
몰 타	776	열이온광전음극관	12.5
	842	섬유소재 남성외출복	2.7
	772	전기부분품	1.3
폴 란 드	821	가구 및 부분품	3.1
	793	선박 및 구조물	1.6
	842	섬유소재 남성외출복	1.3
슬로바키아	781	승용차	6.3
	674	철강제품일반	3.1
	334	정제석유제품	2.2
슬로베니아	821	가구 및 부분품	2.7
	775	가전 및 주방기구	2.5
	781	승용차	1.5

자료: Zaghini(2003), p. 13.

신규가입국 가운데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3개국의 무역구조가 비교적 고부가가치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SITC 713, 781, 784)산업과 전기제품(同 716, 773, 778)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와 슬로베니아는 Lafay 지수에 의한 10대 비교우위품목이 모두 제조업이며, 헝가리는 10대 비교우위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고부가가치산업 그룹인 SITC 7 그룹에 포함된다. 특히 헝가리는 하이테크산업인 자동데이터처리장비의 Lafay 지수가 거의 4에 육박한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유리산업의 경쟁력이 강해 유리제품 수출이 세계시장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는 가구 및 나무제품의 수출이 총교역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은 주로 나무 관련제품 수출에 무역이 특화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많은 제조업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는 통신장비 및 부품(SITC 764)의 Lafay 지수가 무려 6에 가까웠으며, 同 제품의 수출은 총교역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10대 비교우위품목 가운데 SITC 773과 776 두 개의 품목이 SITC 7 그룹에 해당되었다. 라트비아는 10대 비교우위품목 가운데 SITC 7 그룹에 해당되는 품목은 없으나, 역시 제조업 제품군에 해당하는 SITC 6 그룹에서 5개 품목과 SITC 8 그룹에서 3개 품목이 10대 비교우위품목에 포함되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SITC 7~8 그룹의 몇몇 품목이 10대 비교우위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광물 및 비제조업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구리와 과일 관련상품에서 Lafay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슬로바키아는 알루미늄과 석유제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가입국은 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많은 제조업 제

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Lafay 지수 측정 결과 10대 비교열위품목에도 대부분 제조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10대 비교열위제품 가운데 비제조업 제품이 라트비아의 육류가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제품보다는 비교열위에 있는 제조업 제품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EU 가입 추진과정에서의 교역추이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신규가입국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즉 전술한 조사만으로는 신규가입국들이 기존 EU 회원국이나 여타 선진국 혹은 동아시아 신흥개도국들에 비해 어떠한 무역특화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 분류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¹³⁾를 측정하여 여타 경제권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엔나국제경제연구소(WIIW)는 EU에 신규가입하는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특화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을 숙련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하여 RCA 지수를 측정하였다.¹⁴⁾ WIIW는 1990년, 1996년, 2000년 등 3개년도의 RCA 지수를 OECD-북부, OECD-남부, 동아시아, 중·동구 등의 지역으로 구분하

13) 1965년 Balassa에 의해 창안된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_k^i = RX_k^i - RMA_k^i$$

$$\text{where } RX_k^i = (X_k^i/X_n^i)/(X_k^r/X_n^r), \quad RMA_k^i = (M_k^i/M_n^i)/(M_k^r/M_n^r),$$

여기서 X_k^i 와 M_k^i 는 i 국가, k 산업의 총수출과 총수입이며, r 은 i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n 은 k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同 지수가 정(+)의 값을 가지면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부(-)의 값을 가지면 그 반대이며, 절대값이 클수록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Wórz(2003), pp. 2~5.

여 측정하였다(표 2-3 참고).¹⁵⁾ 여기서 중·동구 국가들의 1990년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이들의 1990년 RCA 지수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표 2-3> 숙련도에 따라 분류된 산업별 RCA 지수

	산업1(low skill intensive) ¹⁾			산업2(medium skill, blue collar) ²⁾			산업3(medium skill, white collar) ³⁾			산업4(high skill intensive) ⁴⁾		
	1990	1996	2000	1990	1996	2000	1990	1996	2000	1990	1996	2000
OECD-북부	-0.69	-0.35	-0.27	-0.32	-0.40	-0.39	0.28	0.19	0.20	1.27	1.60	0.23
OECD-남부	1.44	1.15	1.19	0.17	0.35	0.25	-0.41	-0.34	-0.26	-0.68	-0.51	-0.47
동아시아	0.90	0.23	0.10	0.17	0.07	0.09	-0.36	-0.11	-0.39	-0.76	-0.22	0.08
중·동구	n.a.	1.09	0.52	n.a.	0.41	0.76	n.a.	-0.27	-0.25	n.a.	-0.63	-0.46
미국	-0.19	-0.14	-0.16	-1.05	-0.90	-1.01	0.25	0.34	0.35	1.11	0.60	0.58
일본	-1.69	-1.26	-1.22	0.84	0.56	0.85	0.56	0.36	0.20	1.42	0.53	0.21
EU	0.30	0.14	0.20	0.17	0.06	0.10	-0.20	-0.10	-0.08	-0.14	-0.02	-0.13

주: 1) 섬유·의류, 식품, 고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2) 나무·가구, 합성금속, 수송장비, 기타 제조업(보석, 스포츠용품, 뮤지컬도구) 등

3) 종이, 출판, 화학, 전기기계, 전문과학장비 등

4) 의약품, 비전기기계, 우주산업 등

자료: Wörz(2003), p. 3.

<표 2-3>에 따르면, 중·동구 국가들은 숙련도가 가장 낮은 산업1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특화구조는 OECD-남부와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OECD-남부 국가들의 산업1 경쟁력은 증가하고, 산업2 경쟁력이 감소한 데 반해 중·동구 국가들의 산업1 경쟁력은 감소하

15) OECD-북부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며, OECD-남부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아시아에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 해당되며, 중·동구에는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해당된다.

고, 산업2 경쟁력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3과 산업4의 경쟁력은 OECD-남부와 중·동구 국가 모두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중·동구의 무역특화구조는 OECD-북부와 같은 선진권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숙련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무역특화구조는 점차 숙련도가 높은 산업으로 경쟁력이 이전되고 있는데, 그 추세는 OECD-남부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동구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이때부터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은 이미 舊동구권에서 서구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EU 가입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따라서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역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과 최근의 교역통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중·동구 전체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신규가입국의 수출은 무려 2.5배 정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중·동구 및 CIS를 포함한 동유럽 전체의 수출증가 추세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그림 2-2>의 수입추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이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중·동구 국가들은 EU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교역증대로 이루어졌고, 특히 지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신규가입국들의 교역증대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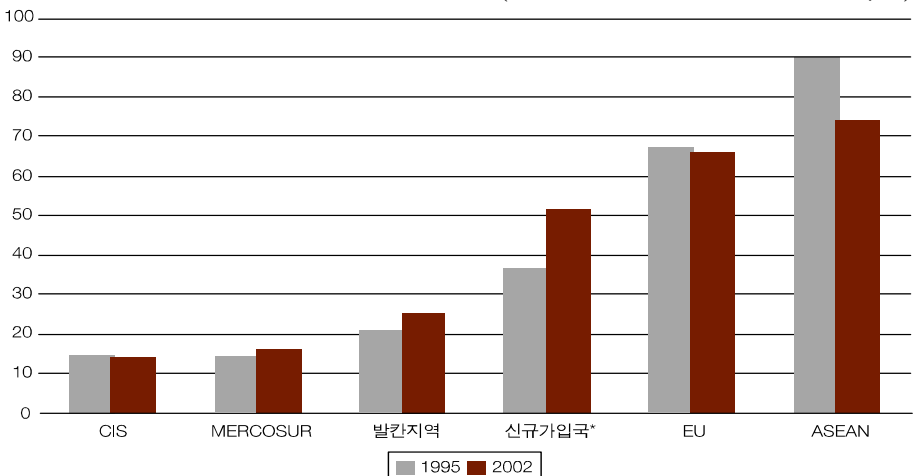
<그림 2-5>에서도 신규가입국이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개방도가 확연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가입국의 개방도는 EU나 ASEAN 국가들에 비해 아직 크게 뒤쳐지고 있으나, CIS나 발칸지역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ERCOSUR, 발칸지역 및 신규가입국은 1995~2002년 동안 개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신규가

입국의 개방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2-1>에서 1995~2002년 동안 신규가입국의 지역별 교역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미 1995년부터 EU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對EU 수출비중은 70%에 육박하였으며, EU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가입국의 교역에서 舊동구권으로부터 서구시장으로의 중심이동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EU 편향적인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5~2002년 동안 이러한 EU 편향적인 무역구조는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신규가입국 가운데 이미 EU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60~70%에 달했던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上記 기간 동안 對EU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림 2-5> 중·동구 국가들의 개방도 변화

(단위: 수출+수입의 GDP 대비 비중, %)



주: * 2004년 5월 EU에 신규가입한 10개국 가운데 지중해 연안의 키프로스 및 몰타를 제외한 중·동구의 8개국임.

자료: EBRD(2003), p. 75.

중·동구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EU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고 EU 가입을 신청하는 등 EU 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패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가장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무역구조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2-3>에서 측정한 중·동구의 산업별 RCA 지수를 국별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별 RCA 지수를 정리한 <표 2-4>에 따르면, 1996년을 기준으로 슬로베니아의 무역구조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었다. 또한 헝가리, 체크, 불가리아 및 발틱 국가들은 최고의 숙련산업그룹인 산업4에서의 비교열위 정도가 중

<표 2-4> 중·동구의 국별 RCA 지수

	산업1(low skill intensive)*		산업2(medium skill, blue collar)*		산업3(medium skill, white collar)*		산업4(high skill intensive)*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슬로베니아	0.11	-0.03	0.27	0.56	-0.02	-0.07	-0.20	-0.19
헝가리	1.38	0.09	-0.20	0.35	-0.04	-0.20	-0.55	-0.11
체크	0.62	0.20	0.54	1.00	-0.34	-0.37	-0.50	-0.34
슬로바키아	0.78	0.56	0.15	0.90	0.03	-0.16	-0.84	-0.61
폴란드	1.29	0.75	0.87	1.32	-0.36	-0.27	-0.86	-0.82
에스토니아	0.63	0.37	0.57	0.38	-0.29	-0.10	-0.33	-0.33
라트비아	0.76	0.68	1.19	2.30	-0.45	-0.45	-0.52	-0.70
리투아니아	1.85	0.91	-0.01	-0.10	-0.21	0.25	-0.48	-0.61
불가리아	2.59	4.72	-0.08	-0.46	-0.89	-0.28	-0.25	-0.50
루마니아	3.20	3.46	0.58	0.45	-0.44	-0.45	-0.91	-0.50
중·동구 평균	1.09	0.52	0.41	0.76	-0.27	-0.25	-0.63	-0.46

주: * 산업분류는 <표 3>과 동일

자료: Wörz(2003), p. 3.

· 동구 평균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보다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및 헝가리는 가장 숙련도가 낮은 산업1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산업에서는 모두 비교열위를 나타내었다. 역시 산업1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산업2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내었다.

산업2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쟁력이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향상되었다. 특히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졌으며, 헝가리는 이 기간 동안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6~2000년 동안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구 국가가 산업1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슬로베니아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같은 기간 동안 산업3에서는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및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산업3에서 순수출국이던 슬로바키아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산업4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발틱국가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구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헝가리의 경쟁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동안 헝가리에 가장 활발하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선진기업들에 의한 FDI가 헝가리의 숙련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진단이며, 이는 헝가리에 이어 최근 FDI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산업4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저임에 의한 산업1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발틱 3국은 중간 정도의 숙련산업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국은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으로 비교우위가 이전하는 무역구조의 선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주로 산업2에서의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졌고, 헝가리와 체코는 산업2와

산업3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무역구조가 상당 부분 선진화되어 있던 슬로베니아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교적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WIIW는 중·동구 10개국을 중구 5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발틱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발칸 2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으로 나누어 무역패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¹⁶⁾ 그 결과 중구 5개국은 단순산업(Low-tech)에서 첨단산업(High-tech)으로의 무역구조조정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동중산업내에서 보다 첨단기술을 요하는 부문으로의 경쟁력이전도 확인되었다.¹⁷⁾ 한편 발틱 3국은 부분적으로 무역구조의 선진화가 엿보이긴 하였으나 중구 5개국만큼 명확하지는 않았으며, 발칸 2개국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무역패턴이 변화하여 단순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었다.

2. EU 확대 이후 교역추이 전망

앞에서 우리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 추진과정에서 교역추이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둘째 EU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셋째 무역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먼저 EU 가입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신규가입국의 교역증대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역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분석

16) Dulleck *et al.*(2003), pp. 10~17.

17) 1995년과 2000년 데이터를 가지고 첨단산업과 단순산업의 수출비중, EU 시장점유율, 단가(Unit value), 단가비율(Unit value ratio)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동중산업내에서도 첨단기술을 요하는 정도에 따라 부문을 분류하여 상기와 같은 네 가지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함으로써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으로 추정한 교역수준과 신규가입국의 실제 교역수준을 비교하였는바, 그 결과가 <표 2-5>에 나타나 있다.¹⁸⁾ 신규가입국의 실제 교역량은 기본 중력모형에 국가면적, 국경, 인프라, 정책 및 제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교역수준의 7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면적, 국경, 인프라, 제도 등이 추가로 고려될 때, 적정교역량대비 실제 교역량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규가입국의 교역에 있어 수송비 부담, 국경, 인프라,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U 가입 이후 인프라와 제도 등이 개선되면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교역증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보다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한 적정교역량대비 실제 교역량 비율

(단위: %)

	기본모형	기본모형 국가면적 ¹⁾	기본모형 국가면적 국경 ²⁾	기본모형 국가면적 국경 인프라 ³⁾	기본모형 국가면적 국경 인프라 정책 ⁴⁾	기본모형 국가면적 국경 인프라 정책 제도 ⁵⁾
신규가입국	63	65	73	75	62	68
발칸제국	24	27	30	32	30	42
CIS	28	39	47	46	55	83

주: 1) 면적이 큰 국가의 내부수송비용이 커 교역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

2) 교역 대상지역까지의 통과 국경 수 고려

3) 인프라 수준 고려

4) 교역자유화 정도 고려

5) 제도적 인프라 고려

자료: EBRD(2003), p. 86.

18) EBRD(2003), pp. 75~77에서는 전 세계 GDP의 95%에 해당하는 83개국의 1997~2002년 패널(panel)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정교역량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신규가입국의 EU 편향적인 무역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심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비슷한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지배적이다.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신규가입국은 EU와의 교역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신규가입국의 절대적인 교역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편향적인 무역구조가 다소 심화되더라도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규가입국 무역구조의 선진화는 EU 가입 이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2004년 5월 10개국이 EU에 정식 가입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EU에 가입할 예정이다. 중·동구 국가들이 이처럼 EU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의 경제는 점차 EU 평균수준에 수렴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무역구조 또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EU 가입 추진과정에서 중구 5개국의 무역구조가 상당 부분 수렴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앞으로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구조가 선진화를 통해 EU에 수렴되어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RCA 지수에 의한 <식 2-2>와 같이 단순한 회귀모형이 유효할 것이다.¹⁹⁾

$$RCA_{kT}^i = \alpha + \beta RCA_{kO}^i + \varepsilon_k^i \quad \text{<식 2-2>}$$

1994~2000년 데이터를 가지고 <식 2-2>에 의해 각 산업별, 산업내 소분류별, 각 국가그룹별 회귀분석을 하면,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²⁰⁾ 이에 따르면 OECD-남부, 동아시아, 중·동구 모두 무역특화가 완화되고 있는 것

19) Wörz(2003), pp. 5~6.

20) 여기서 β 값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β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무역구조의 변화가 적음을 의미하고, $\beta > 1$ 이면 기존의 무역구조가 더욱 강화(발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0 < \beta < 1$ 이면 무역구조가 조정(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의 무역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구 국가들도 OECD-남부 국가들에 비해 무역구조의 수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역별 무역구조의 수렴성 분석결과

	OECD-북부	OECD-남부	동아시아	중·동구
β -coefficient	0.61	0.89	0.65	0.73
sig. of F(H0: $\beta=0$)	0.000	0.000	0.000	0.000
sig. of F(H0: $\beta=1$)	0.000	0.020	0.000	0.000
correlation(ρ)	0.67	0.90	0.71	0.75
adj. R^2	0.46	0.80	0.50	0.57
# of obs.	94	95	95	93

자료: Wörz(2003), p. 6.

이와 같은 신규가입국 무역패턴의 구조적 수렴은 EU 가입 이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EU가 남부유럽과 아일랜드로 확대된 경험에서 중·동구 국가들도 EU 가입 이후 생활수준과 임금이 EU 평균에 점차 수렴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²¹⁾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EU 15개국 가운데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이 가장 생산비용이 저렴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중·동구 국가들이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으로써 역내에서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대를 새롭게 형성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임금이 EU 평균에 수렴함에 따라 이러한 비교우위는 점차 소멸될 것이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07~08년 이후에는 이러한 위치를 후발 신규가입국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금상승에 의해 중·동구 국가들은 노동비용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

21) Laski & Römisch(2003), pp. 7~14.

어 FDI의 유입규모는 다소 조정되겠지만, 보다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는 이른바 FDI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무역구조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비교우위가 이전하는, 이른바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EU 가입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하다.

중·동구 국가 가운데 특히 중구 5개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EU의 무역특화구조에 수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발틱 3국도 EU 가입 이후에는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역내에서 상당기간 동안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구조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는 임금수준이 EU 평균에 수렴해갈 것이고, 저임지대의 이점을 터키, 크로아티아와 같이 향후 EU의 신규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서구선진기업들이 EU 확대로 국경을 접하게 될 CIS 지역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개발잠재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중·동구 지역의 FDI 유입추이와 향후 전망

1. FDI 유입현황

본 장에서는 중·동구 체제전환국 범위를 중구·발틱(Central Eastern Europe and Baltic states: CEB),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남부유럽(South Eastern Europe: SEE) 등까지 포괄하여 체제전환 이후 FDI 유입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²²⁾ CEB는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²³⁾ 등 中歐 5개국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을 포함한 8개국이며, 모두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다. CIS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몰도바 등 12개국이다. SEE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7개국을 말한다.

<그림 3-1>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2년까지 CEB, SEE, CIS를 포괄한 중·동구 지역에 유입된 순(총유입-총유출) 민간자본은 2,1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72%가 CEB에 유입되었고, SEE와 CIS에는 각각 13%와 14%가 유입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동구 지역에 유입된 민간자본 가운데 FDI가 82%였으며, 포트폴리오투자와 기타 민간자본 유입은 각각 6%와 12%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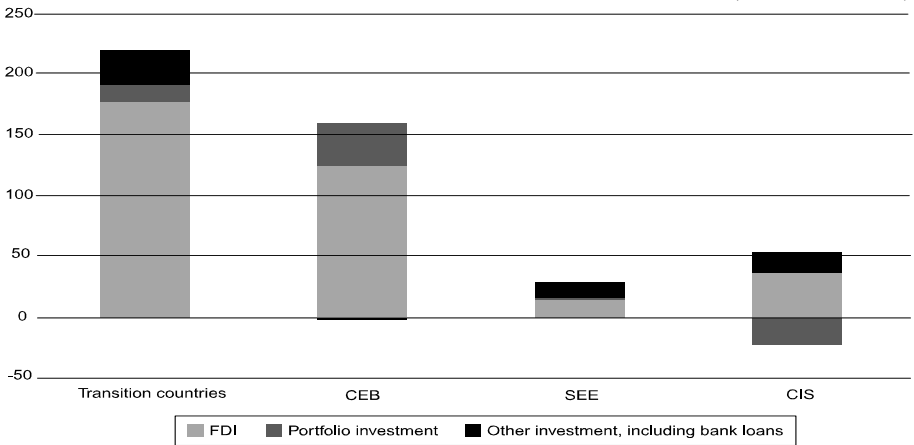
22) 중·동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현황은 주로 EBRD(2003)와 UNCTAD(2003)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철원(2004a)에서 주요 내용을 발제하였다.

23) 일반적으로 CIS를 제외한 중·동구 지역은 중구, 남구(南歐) 혹은 발칸 그리고 발틱 등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슬로베니아는舊유고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칸국가로 분류되지만, 소득수준 및 경제개발 측면에서 선두그룹에 속하므로 중구로 분류되기도 한다.

2002년 말까지 중·동구 지역에 유입된 순 FDI는 1,587억 달러로 이는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전체에 유입된 순 FDI의 15%에 육박하는 규모이다.²⁴⁾ 이 가운데 64%가 CEB에 유입되었고, 이 중 78%가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집중되었다. CIS에 유입된 FDI는 상기 금액의 27%에 불과했으며, 이 중 70%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그리고 19%는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어 對CIS 투자가 대부분 자원개발을 겨냥한 투자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개발에서의 잠재력에 비해 러시아의 FDI 유치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2002년 말까지 러시아의 1인당 FDI 유입규모는 147달러에 불과하여 폴란드의 1인당 FDI 유입규모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SEE에는 불과 9%만이 유입되었으며, 이 중 74%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집중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 비중은 1998년 러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림 3-1〉 1989~2002년 중·동구의 순수적 민간자본 유입현황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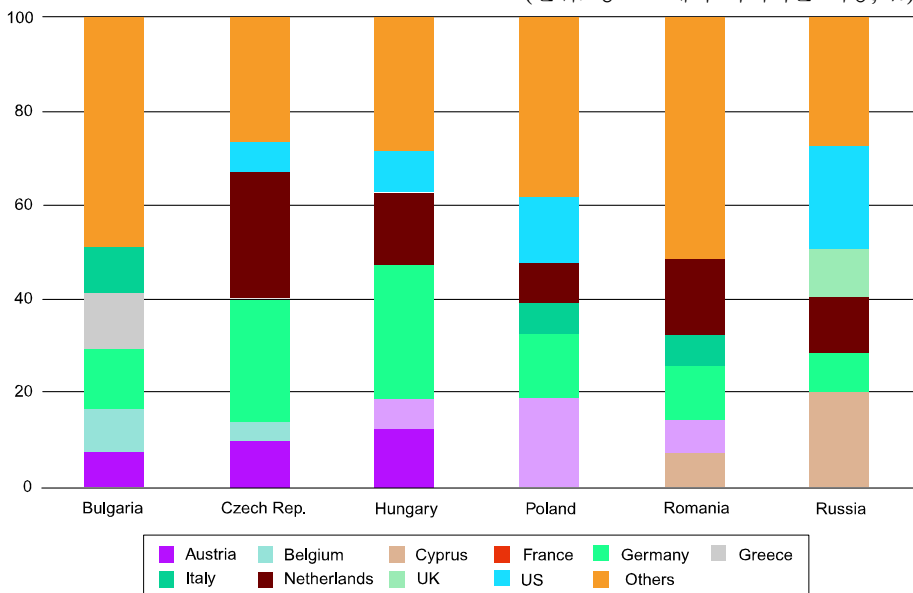
자료: EBRD(2003), p. 90.

24) UNCTAD(2003), pp. 260~265.

중·동구 지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2002년 말 현재 체코와 헝가리의 총누적 FDI 유입액의 50%와 44%를 각각 점하고 있다. 체코와 헝가리에 그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과거 이 지역들에서 합스부르크 왕국을 건설했던 오스트리아로 지형적, 문화적 인접성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과거 로마제국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탈리아가 로마문화의 또 다른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미국도 중·동구 지역의 주요 투자국이나 CEB 국가들보다는 자원개발을 겨냥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對중·동구 유입 FDI의 주요 투자국별 구성

(단위: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EBRD(2003), p. 91.

중·동구 지역에 대한 FDI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효율성 제고형(*efficiency-seeking*) 투자이며, 두 번째는 시장접근형(*market-seeking*)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접근형(*resource-seeking*) 투자이다.²⁵⁾

중·동구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낮은 인건비 등에 기초한 생산비용 절감이 기본적인 목표였으며, 이를 효율성 제고형 투자라 한다. 중·동구 국가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2년 월평균 제조업 임금은 한국의 60%, 영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임금수준이 제일 낮은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동구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성은 EU 평균의 약 50~60%에 달해 임금대비 생산성은 EU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을 염두에 두고 이 신규회원국들을 거점으로 한 EU시장 접근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이른바 시장접근형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장접근형 투자는 중·동구 국가 가운데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CEB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헝가리, 체크, 폴란드 등 선진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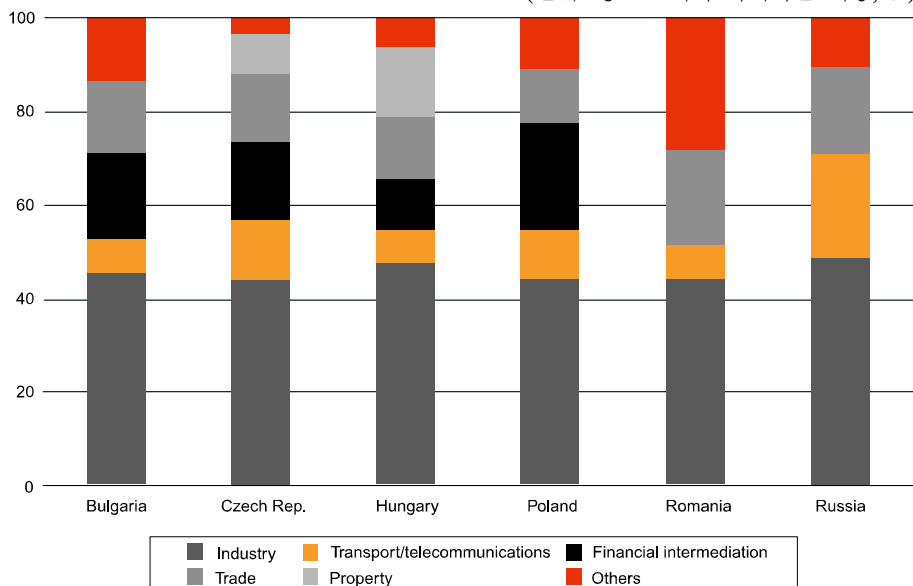
선진 중·동구 국가들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염두에 둔 자원접근형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 중·동구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CIS 국가들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3-3>에서 중·동구의 산업별 FDI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효율성 제고형 FDI가 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동안 서

25) EBRD(2003), pp. 91~92.

〈그림 3-3〉 對중·동구 유입 FDI의 주요 산업별 구성

(단위: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EBRD(2003), p. 91.

유럽으로부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설비의 중·동구 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체코와 폴란드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무역 및 금융중개업 부문에 대한 FDI 유입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선진 중·동구권에 대한 시장접근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선진권인 헝가리가 금융중개업 부문에 대한 FDI 유입비중이 예상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헝가리가 제조업 부문의 국영기업과 부동산 등의 민영화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이 가장 과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중개업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작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러시아는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연료·식품·무역·수송 부문에 대한 FDI 유입이

69%에 이르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FDI도 1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접근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CEB 국가들에 유입된 FDI는 수출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된 반면, CIS 국가들에 유입된 FDI는 국내공급 및 수입대체산업에 집중되었다.

2. EU 확대 이후 FDI 유입 전망

비엔나국제경제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WIIW)에 의하면, 2003년에 중·동구 체제전환국에 유입된 FDI는 약 180억 유로로 추정된다.²⁶⁾ 이는 2002년의 310억 유로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CEB 국가에 유입된 FDI가 2002년 210억 유로에서 2003년 77억 유로로 급감하였는바, CIS와 SEE 국가들에 유입된 FDI 규모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 전 세계 FDI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CEB 국가들을 제외한 중·동구 체제전환국에 유입된 FDI 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CEB 국가들의 급격한 FDI 유입 축소는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완료, 노동비용 상승, 이미 높은 1인당 FDI 유입규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구 지역에 대한 2004~05년 FDI 유입은 대체로 2003년에 비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UNCTA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동구 각국 FDI 유치 관계자들의 80% 이상이 2004~05년에 FDI 유입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⁷⁾ CEB 국가들에 대한 FDI는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2003년 수준보다는 다소 호전되면서 첨단산

26) WIIW(2004), p. 15.

27) UNCTAD(2003), p. 68.

업으로 투자가 이전되는 이른바 FDI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효율성 제고형 FDI가 CEB 지역에서 주춤하는 대신 SEE와 CIS 지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형 FDI가 본격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CIS 지역은 자원접근형 FDI 유입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환경이 EU 평균수준으로 수렴함을 의미하므로 EU 가입 이후 중·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U 가입으로 EU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민간부문 개발, 은행부문 개혁, 외환 및 교역 자유화, 법제 정비 등으로 중·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선진 중·동구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EU에 신규로 가입하게 되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국가들과 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간 교역에 있어 거점이 되는 것이다. 폴란드와 발틱 3국은 러시아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자국이 진출거점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는 발칸지역의 진출거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배적이지만, EU 가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바,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EU의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역내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품가치의 60%가 역내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EU 평균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의해 신규회원국들의 노동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되었던 각종 세제특혜가 EU 기준에 의거하여 철폐 혹은 축소되어야 한다. 2002년 슬로바키아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제도와 헝가리의 대규모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10년간 납세유예제도가 EU 규정에 대한 수렴을 위해 이미 철폐된 바 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EU 가입으로 폐지 및 축소됨에 따라 중·동구 각국은 지속적인 FDI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고용 창출, 경제성장 부양,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27%에서 19%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밖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2004년부터 법인세율을 각각 7% 포인트와 6% 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러나 EU의 기존 회원국 가운데 FDI 유치실적이 가장 좋은 아일랜드에 비해 CEB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며, 향후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할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중구 4개국의 법인세 현황

(단위: %)

국 가	2003년	2004년
체 코	31	24
헝가리	18	18
폴란드	27	19
슬로바키아	25	19
EU 평균	32	n.a.
아일랜드	12.5	n.a.

자료: UNCTAD(2003), p. 66.

EU 가입 이후 CEB 국가들은 시장접근형 투자에 대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SEE 국가들의 효율성 제고형 투자여건과 CIS 국가들의 자원접근형 투자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CEB 국가는 모두 2004년 5월 EU에 가입함에 따라 기존 EU시장과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체제전환 초기에 주축을 이루었던 효율성 제고형 투자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시장접근형 투자는 더욱 유망해질 것이다. CEB 국가들의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SEE 국가들은 새로운 효율성 제고형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

를 것이며, 선발 CEB 국가들의 뒤를 이어 EU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해 자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결국 효율성 제고형 투자의 주요 흐름은 저렴한 인건비를 따라 CEB에서 SEE로, 그리고 CIS로 점차 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물분배제도 등 에너지자원에 필요한 각종 법제 정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CIS 국가들에 대한 자원접근형 투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환경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한국과 중·동구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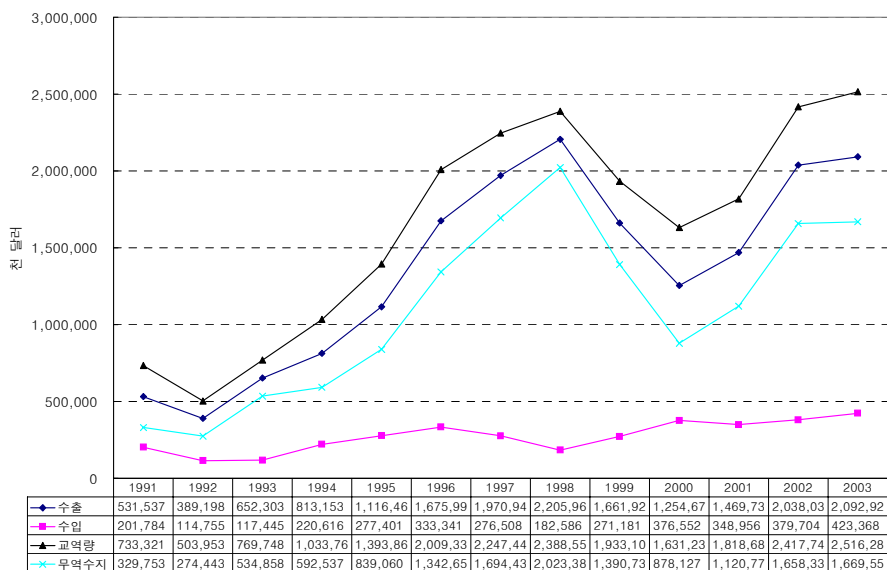
2003년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총교역량은 25억 1,629만 달러로 이는 한국 총교역의 약 0.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²⁸⁾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교역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러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중·동구 경제의 침체, 대우그룹 해체 등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교역은 2001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2002년에는 1998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EU 신규가입국과의 교역에서 상당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양측의 교역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1998년에 한국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그 뒤 2000년까지 흑자 폭이 둔화되다가 2001년부터는 다시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약 1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1% 이상으로 교역규모 면에서는 그리 큰 시장은 아니지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에 20억 9,292만 달러를 기록, 한국 총수출의 약 1%를 점하였다. <그림 4-1>에 따르면, 수출추이가 교역추이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98년 22억 597만 달러로 최고치

28)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교역현황에 대해서는 이철원(2004b)에서 주요 내용을 발제하였다.

를 기록한 뒤, 수출은 2000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1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19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한국의 신규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억 2,337만 달러로 한국 총수입의 약 0.2%에 불과하다. 수출추이와 다르게 수입추이는 소폭의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1997년과 1998년에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최근까지는 2001년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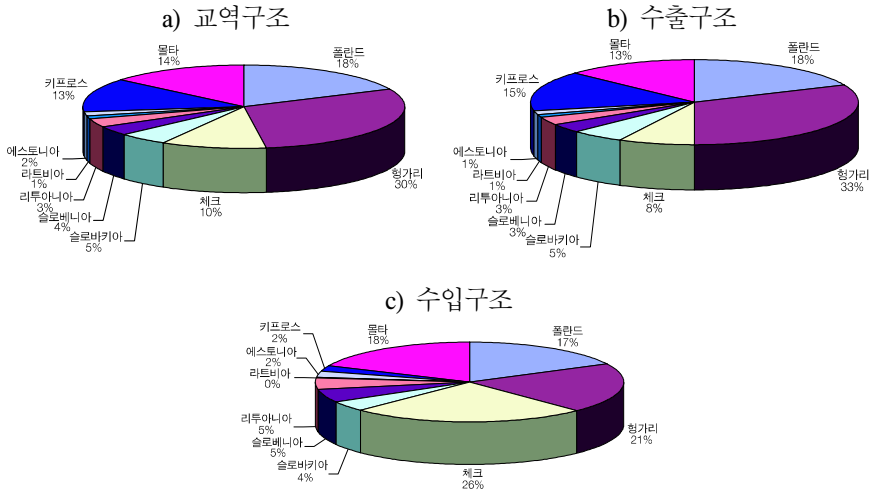
<그림 4-1> 1991~2003년 한국의 對신규가입국과의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그림 4-2>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국별 교역구조(2003년 기준)

(단위: 총교역, 수출 혹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EU 신규가입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구 3개국과의 교역비중이 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폭의 교역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헝가리와의 교역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적인 시장경제국인 몰타와 키프로스와의 교역도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에 따르면, 한국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수출도 상기한 교역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EU 신규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체코가 26%로 헝가리와 폴란드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키프로스의 비중이 매우 작은 반면에 몰타의 비중은 18%에 달했다.

<그림 4-2>에서 이미 살펴본 국별 교역구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구 3개국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이 3개국 시장으로 분석의 범위를 집중시켜도 10개국 전체 시장을 살펴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신규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헝가리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은 컴퓨터(MTI 품목코드 813)로서 2003년 헝가리에 1억 5,700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체크에서도 컴퓨터는 우리의 3대 수출품목이다. 또한 무선통신기기(同 812), 자동차(同 741), 영상기기(同 821) 등

〈표 4-1〉 중구 3개국에 대한 주요 수출입품목(200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헝 가 리			
컴 퓨 터	157.2(23.8)	컴 퓨 터	17.3(19.9)
무 선 통 신 기 기	129.9(19.6)	육 류	16.7(19.3)
자 동 차	100.8(15.2)	음 향 기 기	12.2(14.1)
영 상 기 기	63.6 (9.6)	자 동 차 부 품	4.8 (5.5)
가정용회전기기	33.3 (5.0)	자 동 차	3.0 (3.5)
폴 란 드			
영 상 기 기	78.5(20.5)	형 강	14.6(19.9)
자 동 차 부 품	43.5(11.4)	자 동 차 부 품	7.7(10.5)
자 동 차	34.4 (9.0)	난방·전열기기	5.5 (7.4)
인조장섬유직물	29.3 (7.7)	무 선 통 신 기 기	5.3 (7.2)
무 선 통 신 기 기	28.3 (7.4)	기 타 가 구	4.1 (5.6)
체 크			
자 동 차	73.4(46.6)	유 리 공 예 품	26.3(25.2)
무 선 통 신 기 기	17.9(11.4)	자 동 차 부 품	22.8(21.8)
컴 퓨 터	12.3 (7.8)	수 동 부 품	17.1(16.8)
합 성 수 지	9.4 (6.0)	반 도 체	4.2 (4.0)
영 상 기 기	6.3 (4.0)	철도차량 및 부품	3.1 (3.0)

주: MTI 3단위 기준, () 안은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품은 폴란드와 체크에서도 모두 5대 수출품목에 해당된다. 이밖에 헝가리에서는 가정용 회전기기(同 824), 폴란드에서는 자동차부품(同 742)과 인조장섬유직물(同 434), 그리고 체크에서는 합성수지(同 214) 등이 5대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EU 신규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출과는 달리 체크의 유리공예품(同 573)과 헝가리의 육류(同 022)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수입품목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매년 주요 수입품목의 구성이 대폭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등 아직까지 EU 신규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이 신규가입국들을 대상으로 상당 부분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역불균형의 조정압력을 받을 수 있는바, 이들로부터의 유망 수입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한국기업들의 투자현황

2004년 1월 말 현재 누적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신고 기준으로 110건에 14억 8,237만 달러에 달한다.²⁹⁾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신고건수의 0.5%와 총신고 금액의 2.1%에 불과한 규모이다. 총투자 기준으로도 비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對EU 신규가입국 총투자는 92건에 8억 3,775만 달러로 이는 한국 총투자건수의 0.5%와 총투자금액의 1.9%에 불과한 것이다.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투자에서 건당 투자규모는 총신고 기준으로 1,348만 달러를 기록, 한국의 총신고 1건당 평균 투자규모인 298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총투자 기

29) 한국기업들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이철원(2004b)에서 주요 내용을 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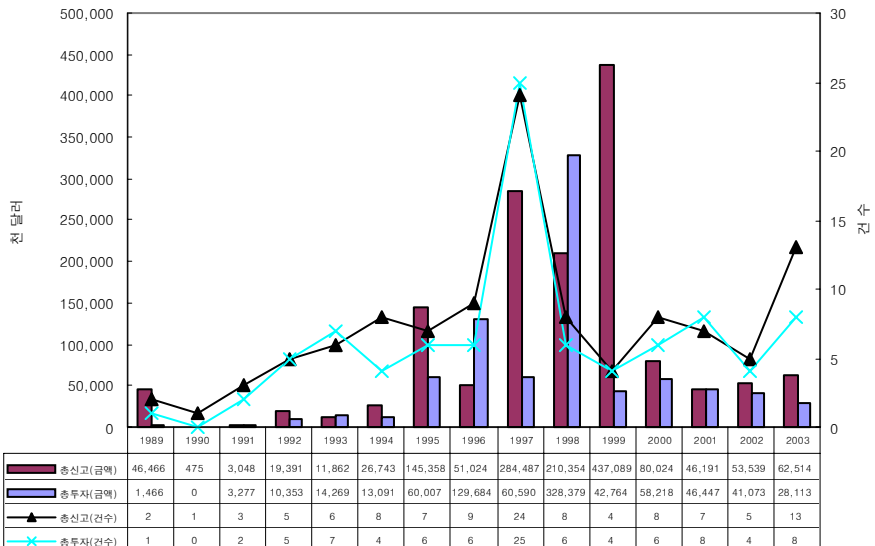
준으로도 건당 911만 달러를 기록, 한국의 총투자 1건당 평균 투자규모인 223만 달러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크게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1997~9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축소되었으며,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체제전환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1999년에는 중·동구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던 대우그룹이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투자는 그 이후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림 4-3>에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는 1997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침체일로를 걷다가 2003년 들어 다소 활

〈그림 4-3〉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추이

(단위: 천 달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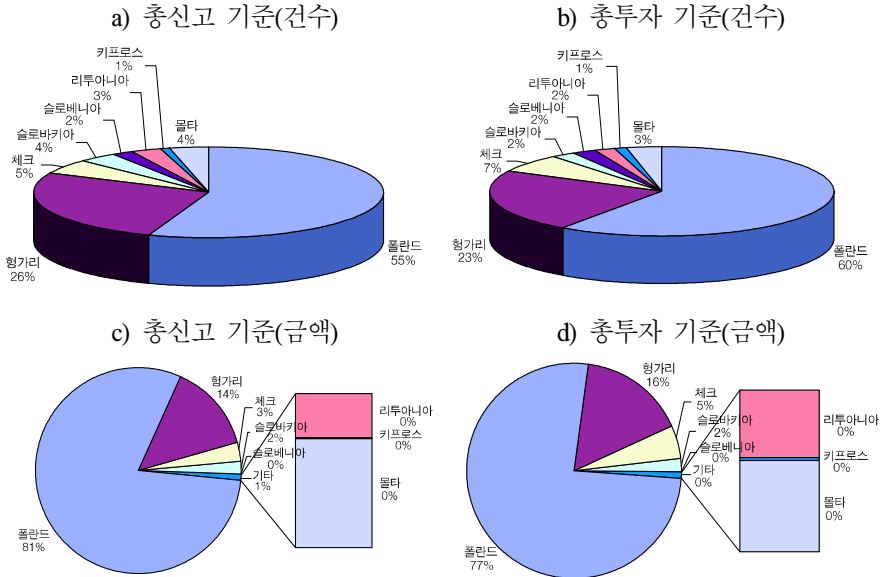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성화되는 양상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신고가 1999년을 기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총투자는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또한 건수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다시 활성화의 조짐이 나타난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침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최근 투자활성화가 건당 투자규모가 적은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기업들은 2004년 1월 말 현재 EU 신규가입 10개국 가운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8개국에 직접투자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그림 4-4>에서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의 국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구 3개국에 편중되고 있다. 총신고건수는 폴란드가 55%, 헝가리 26%, 체코 5% 등 중구 3개국이 86%를 점하고 있고, 총투자건수는 폴란드 60%, 헝가리 23%, 체코 7%로 중구 3개국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금액 기준으로도 살펴보면 더욱 심화되는바, 총신고금액은 폴란드 81%, 헝가리 14%, 체코 3%로 중구 3개국이 98%를 점하고 있고, 총투자금액 역시 중구 3개국이 98%를 점하고 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폴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對중·동구 투자가 내수시장이 가장 큰 폴란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는 23~26% 정도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14~16%에 그쳐, 비교적 소규모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에 대한 투자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의 국별 구성

(단위: 2004년 1월 말 현재 누적치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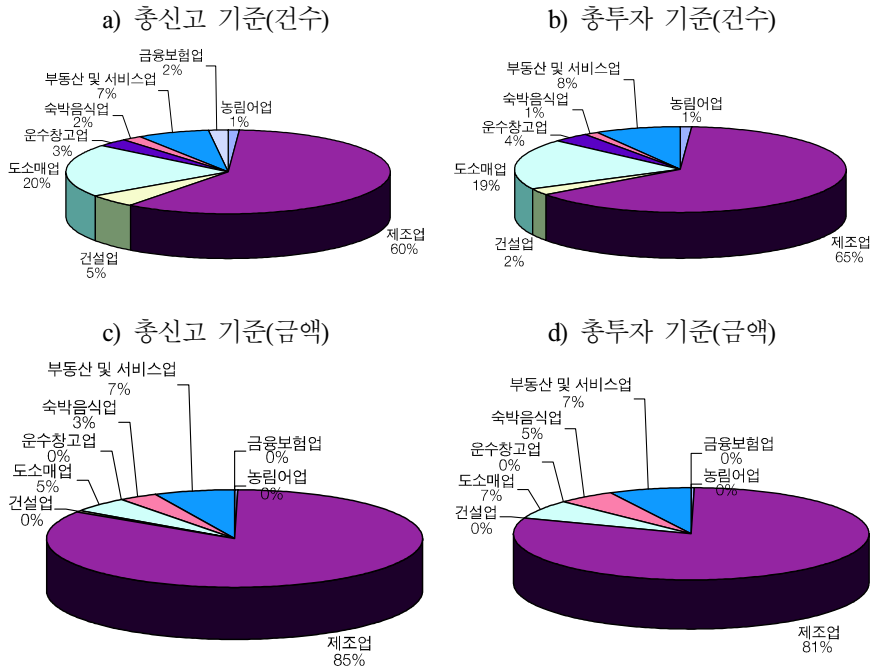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4-5>에서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총신고가 60%, 총투자자가 65%였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각각 총신고가 20%와 7%, 총투자자가 19%와 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편중현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총신고금액 기준으로 85%, 총투자금액 기준으로 81%를 제조업이 점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총신고가 7%로 도소매업보다 2% 포인트 높았고, 총투자자가 도소매업과 같은 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제조업 부문에는 주로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

루었고, 도소매업 부문에는 주로 소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5>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의 업종별 구성

(단위: 2004년 1월 말 현재 누적치 기준,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전술한 바와 같이 중·동구 지역에 대한 FDI는 첫째, 효율성 제고형, 둘째, 시장 접근형, 그리고 셋째, 자원 접근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³⁰⁾ 이 가운데 한국기업의 투자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낮은 인건비 등에 기초한 생산비용 절감이 기본적인 목표였으며, 여기에

30) EBRD(2003), pp. 91~92.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을 염두에 두고 이 신규회원국들을 거점으로 한 EU시장접근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함께 고려된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투자는 건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편중성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는 EU시장을 겨냥하고 투자대상국 내 수보다는 EU시장 전체의 수요에 맞추어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비 절감이 투자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향후 경제협력 전망

가. 교역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신규가입국들의 EU 가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규가입국들은 EU 가입과 동시에 EU 관세동맹에 편입됨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EU 평균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상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도 EU 기준에 수렴하였다.³¹⁾ 또한 신규가입국이 EU 법규를 채택함에 따라 각종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수출입을 비롯한 각종 절차가 간소화, 개방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가입국의 국가위험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31) 예를 들어 헝가리는 EU 가입 이전 평균관세율이 6.5%였는데, 2004년 5월 이후 EU 평균인 3.9%로 낮아졌으며, 한국상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도 3.7%로 낮아졌다. 또한 폴란드는 EU 가입 이전 평균관세율이 11.7%에 달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는 35%에서 10%로, 체크는 17.1%에서 10%로 수입관세율이 각각 인하되었다.

이렇듯 신규가입국들의 EU 가입은 교역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역내 단일시장의 확대로 다소의 무역전환효과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역외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장벽이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³²⁾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국가와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엄연하게 존재한다. 또한 EU가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EU의 경쟁정책 확대 적용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신규가입국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이 확대 적용될 것인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은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효과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가 4억 5,500만 명이라는 거대단일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국가들이 매년 1.3~2.1%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신규가입국과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산 상품의 수입수요증가는 한국의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가입국들의 수출상품 개발은 한국의 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은 前述한 바와 같이 EU 신규가입국에 대해 상당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것보다는 완화되는 것이 양측의 교역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그림 4-1>에서 1990년대 중반의 수출증가세와 최근의 수출증가세는 그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의 수출증가가 현지 직접투자에 따른 원부자재 수출 급등을 비롯한 일시적 요인

32) 金興鍾 外(2003), pp. 207~212.

들에 주로 기인한 반면, 최근의 수출증가는 현지시장의 구매력 상승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매우 견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투자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환경이 EU 평균수준으로 수렴함을 의미하므로 EU 가입 이후 중·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가입으로 EU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민간부문 개발, 은행부문 개혁, 외환 및 교역 자유화, 법제 정비 등으로 중·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선진 중·동구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배적이지만, EU 가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바,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³³⁾

투자의 대상지로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신규가입국들의 가장 큰 매력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유럽시장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은 이미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중·동구로 대거 이전시키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기존 유럽의 공장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33) 제3장 2절 참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영국 웨일즈 공장, 삼성SDI의 독일 베를린 공장, 삼성전기의 포르투갈 공장들을 점진적으로 헝가리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생산거점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4개국을 놓고 저울질하던 기아자동차는 최근 총 11억 유로를 투입하여 연 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공장을 슬로바키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내 10개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슬로바키아에 동반 진출할 예정이다.

과거 대우자동차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그림 4-4>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對 EU 신규가입국 총투자금액의 77%가 아직까지 폴란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1990년대 중반과 같이 한국기업의 이 지역 투자진출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의 중·동구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바로 수출증가로 이어진 것처럼 최근 회복세가 뚜렷한 한국의 對EU 신규가입국 수출도 이러한 투자증대에 힘입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金興鍾 · 李哲元 · 朴映坤 · 朴慶錫. 2003.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지역연구 03-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철원. 2004a. 「중·동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추이와 전망」. 『월간 KIEP 세계경제』, 제7권 제3호 통권66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4b. 「EU 신규가입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월간 KIEP 세계경제』, 제7권 제4호 통권67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4. KOTIS(<http://kotis.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2004. 한국종합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 32, No. 2, pp. 99~123.
- Deutsche Bank. 2002. "Runaway costs or willingness to reform - the two sides to enlargement."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July 17)
- Dulleck, U., N. Foster, R. Stehrer, and J. Wörz. 2003. "Are CEECs trapped in low-quality export specialization?" *Monthly Report*, 2003/8-9.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European Commission. 2002. *Towards the Enlarged Union*.
- EBRD. 2003. *Transition Report 2003*.
- EIU. 2003. *Country Profil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 Global Insight. 2004.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 IMF. 2003.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 Lafay, G. 1992. "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In M. G. Dagenais and P. 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Chapman & Hill. London.
- Laski, Kazimierz and Roman Rómsch. 2003. "EU membership and income level

- convergence: the Experience of the Cohesion Countries.” *Monthly Report*, 2003/4.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PlanEcon. 2003. *PlanEcon Review and Outlook: Eastern Europe*. (September)
- UNCTAD. 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WIIW. 2003a.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 _____. 2003b. “Transfer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after 2006.” *Monthly Report*, 2003/5.
- _____. 2004. “Transition Countries on the Eve of EU Enlargement.” *WIIW Research Reports* 303. (February)
- WMRC(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2. “European Union: Enlargement: A Process Review.” *World Markets Country Analysis*. (October 4)
- World Bank. 2003.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 Realizing the Development Promise of the Doha Agenda*.
- Wörz, Julia. 2003. “Trade structure and convergence: a comparison of CEECs to different world regions.” *Monthly Report*, 2003/7.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Zaghini, Andrea. 2003. “Trade advantages and specialization dynamics in acced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249. ECB(European Central Bank). (August)

Executive Summary

The Prospects of Trade and FDI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EU Enlargement

Cheol-Won Lee

Ten new member states (Cyprus,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Slovakia and Slovenia) joined the EU on May 1. This means that the EU is now comprised of 25 of the 191 sovereign states of the world. The old EU had 380 million inhabitants, and enlargement added another 75 million people, an increase of 20%. Thus the enlarged EU has 455 million inhabitants. Also enlargement contributed little to the total GDP of the EU which increased to about 9,600 billion €, an increase of 5%.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on-going process of the enlargement, and examining the impacts of the process on the economy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 especially trade and FDI. This will allow us to evaluate the prospects of trade and FDI in CEE after EU enlargement. And we can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EU enlargement on the Korean economy with a special emphasis in trade and investment.

Central and Eastern Europe's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has taken a decade and a half. Immediately after the transition process had started around 1989, trade and FDI liberalization became important vehicles of the transfor-

mation. Companies from advanced countries started to expand to these new markets and cheap production sites.

Since 1990, CEE countries' foreign trade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which entailed a massive reorientation of eastern European foreign trade away from the Eastern Bloc to the West and particularly the EU. And the prospect of EU membership has already influenced trade. CEE countries have indeed converged in trade structures to other major trading blocks such as the EU, OECD, and so forth. This implies that there has been skill upgrading in CEE countries' trade patterns over the 1990s.

EU membership is likely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and the flow of FDI into the new member states as potential risks become smaller. The experience of former EU enlargements points into that direction. However, there are certain factors that could make the new member states less attractive to FDI, too. This could mean that other investment locations with similar competitive advantages (i.e. low wages, reasonable productivity due to sound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will gain. The immediate winners might be other countries neighboring to the enlarged EU such as the second-line candidates Bulgaria and Romania, or Balkan and Western CIS countries.

KIEP 발간자료목록(2000~04. 8)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 裴嬉娟
04-01	南亞共 淸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과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정책연구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蔡旭 · 金準東 · 宋有哲 · 尹美京 · 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 · 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 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敎·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 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主要 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主要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中國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讀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讀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公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崔洛均 外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 02-13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玗慶
-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 02-17 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 02-21 韓 · 中 · 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 · 楊斗鏞 · 吳奎澤 · 金恩京
- 02-25 한 · 중 · 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 · 岡本 信廣
-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外
-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 · 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 · 王允鍾 · 李鍾和
-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三模 · 朱尙榮
-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 · 李彰洙 · 姜丁實
-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池晚洙 · 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 · 池晚洙 · 韓正和
03-07	중 · 아세안 FTA의 추진과 과급영향	鄭仁敎 · 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栗 · 鄭仁敎 · 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 · 金良姬 · 金恩志 · 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曹琮和 · 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 · 金元鎬 · 朴淳讚 · 全鍾奎 · 權奇洙 · 金眞梧 · 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安炯徒 · 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 · 鄭永虎 · 崔秉浩 · 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 · 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金準東 · 金鍾一 · 姜俊求
03-23	한 · 중 · 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敎 外
03-24	한 · 중 ·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 · 朴淳讚 · 宋有哲 · 尹美京 · 李 根
03-25	한 · 중 · 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 · 중 · 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 · 楊斗鏞 · 王允鍾 · 李鍾和
03-27	한 · 중 · 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敎 外

■ 지역연구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金興鍾 · 金良姬 · 朴英鎬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金興鍾 · 李哲元 · 朴映坤 · 朴慶錫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李章揆 · 趙顯垓 · 吳東胤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鄭在完 · 權耿德

■ 조사분석

00-01	투명성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尹美京 · 李奎億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朴映坤 · 尹錫明

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cw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1998)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2001) 외

지역리포트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004년 8월 25일 인쇄

2004년 8월 30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70-2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